

#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만든다

### 전북대, 세계 우수 기업과 협력... 연구개발·기술지원 나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이북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대는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태양광 및 클린테크 싱크탱크인 솔라비즈니스클럽(Solar Business Club·의장 토마스 슈사츠), (주)세계종합환경(대표 양기해)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탑에머리트에 본부를 두고 2018년

설립된 솔라비즈니스클럽은 태양광과 클린테크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관련 업체와 투자자 등을 연결해 주는 국제 컨설팅그룹이다.

또한 (주)세계종합환경은 세계 최초로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지역 연구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토마스 슈사츠 솔라비즈니스클럽 의장, 양기해 (주)세계종합환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북대는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하고, (주)세계종합환경은 부지조성 및 시설투자 등 기반 구축에 나선다.

솔라비즈니스클럽은 관련 분야 국제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지난 7월 해양발전플랜트연구소가 중심이 돼 27개 기관과 기업 등의 뜻을 모아 2020년까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고, 2014년엔 새만금 풍력 태양광

3GW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만금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와 생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를 만들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우수 기업들과 우리대학이 서로 뜻을 합쳤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더해졌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 에너지 사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에서 시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인기만점 '길 위의 인문학'

### 도내 청소년 1000여명 참여... 전통문화와 역사 체험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하는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이 도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 등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대는 2014년부터 6년 연속 선정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 1,000여 명이 전주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주동북초, 전주서중, 전주은빛중학교 등 초·중학생들이 참여해 전통문양 에코백, 인장 만들기, 민화 부채 만들기

기 체험과 더불어 박물관과 학예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박물관 소장품과 인문학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박물관과 인문학의 흥미를 높이고, 박물관의 기능과 학예사의 역할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유물 속 소원을 찾아서'와 '조선에서 온 편지' 등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LINC+사업단, 삼례 마을가꾸기 '큰 호응'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완주군 삼례읍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은 최근 삼례읍 하리마을과 조사마을, 주공 1, 2단지 일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펼쳤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마을의 문제와 과제를 논의하고, 가장 기초적인 마을 청소 및 아름다운 마

을 가꾸기에 동참함으로써 마을 및 주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은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아름답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를 원하는 공공 공간을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했으며, 전북대 LINC+사업단과 함께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사업단과 주민들은 삼례 하리마을 진입부에 방치된 쓰레기와 잡초를 제

거했고, 공정의 담장에 의해 삭막해진 경관을 탈바꿈하기 위해 진입부 이미지 개선과 이와 연계된 경로당 일대의 경관 개선 작업을 펼쳤다.

또한 조사마을과 주공 1단지에서는 주민들의 휴게 공간인 마을 정자 주변의 환경을 개선했고, 주공 2단지 일대에서는 단지 경계부이자 보행자 진입부인 남측 도로변의 적재된 쓰레기를 제거하고,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변을 녹화하는 등 경관 개선작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에는 마을주민 50여명, 전북대 학생 및 교수 13명이 참여했다. 주

민들은 마을 가꾸기를 통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지속적인 마을관리 경험을, 학생들은 마을에서의 문제와 과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주민을 지원하면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기초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주민들의 마을가꾸기 사업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도시재생 사업경험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혁신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자·신·감' 프로젝트 추진계획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학년도 일반고 '자유롭게·신나게·감동적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 일반고 96개교 교장 또는 교감, 총괄업무담당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신·감'이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배움중심 수업으로 신나게 활동해,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일반고를 만들어 '난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학생 배움중심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지원 ▲기초학력 저능학생 지원 ▲학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진로중점학교 확대 운영 지원 ▲소수학생 선택과목 개설 확대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신·감' 프로젝트의 핵심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인당도서관에서 지난 7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서골든벨 행사를 성황리 마쳤다.

## 호원대 인당도서관, 독서골든벨 행사 성료

호원대학교 인당도서관(관장 서은미)에서는 7일 도서관 2층 로비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서골든벨 행사를 성황리 마쳤다고 전했다.

독서문화 활성화와 우리 군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이번 독서골든벨 행사에는 군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정현 작가의 '비랑별의 군산이야기'를 지정도서로 선정했으며, 행사참여자에게 미리 나눠준 해당도서에서 퀴즈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독서골든벨 행사는 사전에

신청한 40명을 대상으로 객관식(사지선다형)문제와 정답형 단답식 문제를 출제해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 퀴즈 프로그램으로서, 행사참여자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해 학과별로 참여자를 4명으로 제한해 선착순으로 확정했다.

행사진행에 있어서 초반 탈락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패자부활전을 실시했고, 중간 탈락자들만을 위한 행운상 퀴즈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행사에 흥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이번 제3회 독서골든벨에서는 최종 1인을 가리는 골든벨문제에서 무려 7차례의 연장전을 치르는 등 우승자와 준우승자간의 치열한 접전이 이뤄져 관람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결국 최종 우승은 소방안전학과 4학년 이슬빈 학우로 결정돼 40만원의 우승상금을 차지했다.

졸업반인 이슬빈 학우는 우승소감에서 "독서골든벨을 준비하며 지정도서를 10여 차례 정독했으며, 이번 행사로 인해 군산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됐고,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는 전주교대와 도교육청의 협업사업으로 학습속도가 느린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예비교원인 전주교대 학생들이 코티칭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봉사활동이다.

지난 8일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례를 공유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주 덕진초 외 30개교에서 86명의 예비교원이 참여하고 있는 보조교사제는 ▲초등 저학년 첫걸음 지원 ▲읽기·쓰기·기초수학을 지도하는 '기초학습(3R's) 지원'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학습 향상 지원' ▲학습고민·상담 지원 등 학습지원에 대한 1:1 집중지원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설명회에는 전주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 담당교사와 전주교대 예비교원 보조 교사 신청 담임교사 등

160여명이 참여해 예비교사제 운영 사례 소개 및 공유,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3학년 운영 사례를 발표한 김미정(전주덕진초) 교사는 "전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한명씩 오류를 다 봐주지 못했는데 전주교대 예비교원과 학생 지도를 같이 하니 모든 아이들을 살펴 오류를 해결해줄 수 있었고 다음 수업에서 심화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4·5학년 영어과목 운영 사례를 발표한 김주루(전주북초) 교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예비교원이 다른 친구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순화하며 학습더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과를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 따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과제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희 장학사는 "예비교원과 담임교사의 연계지도가 학생 맞춤형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효과가 크다"면서 "더 많은 학교와 담임교사의 참여로 예비교원 보조교사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